

요양시설, 통제 넘어 개방으로



전 용 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우리 사회는 활기찬 일상을 회복한 지 오래다. 이동의 자유도 온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취약한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은 여전히 팬데믹 시기에 멈춰 있다. 일상 회복 이후에도 감염병 예방과 안전 등의 명분으로 포장된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요양시설이 거주자의 외출을 제한하고 가족의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을 핑계로 닫힌 문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 노인은 밖으로 나갈 자유를 잃고 가족과의 교류마저 통제되면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을 안겨주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며, 소통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시설이 지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 요인은 바로 이 '구조적인 폐쇄성'에 있다. 통제된 환경은 밖에서 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설에 대한 불신감을 높인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는 돌봄의 질이 저하되거나 끔찍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인지하기 힘들어 학대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은 '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적극 지향한다.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요양시설을 거주 노인들만의 고립된 수용 공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요양시설에 정원, 카페, 식당, 다목적실 등의 공간을 설계하여 동네 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한다. 시설 방문을 일상 속에서 안부를 묻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공간으로 바꾸는 훌륭한 효과를 낳는다. 여전히 외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우리의 현실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인권적 퇴행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쉬움을 남긴다. 감염 관리라는 명분 뒤에 숨어 개별 시설의 재량이 맡겨줄 것이 아니라, 이용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지침을 현실화하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면회를 거주자의 '기본권'에 가까운 일상 기능'으로 바라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은 '상시 개방'으로 두고, 면회 제한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해야 한다. 무작정 면회를 막는 대신 사전예약, 공간 분리, 환기, 인원 상한처치 위험을 낮추는 설계를 표준화하고, 감염관리 지침 역시 '어떤 조건이면 개방 가능한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음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제 3자가 시설에 방문해 어르신·종사자·보호자 면담을 하고, 인권침해나 생활불편을 파악해서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평가 항목에 월별 면회 가능 일수, 외부 프로그램 운영 횟수, 보호자 만족도, 지역 개방 공간 비율 등 개방성 지표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어린이 방문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인간다운 삶은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 대표

짐승도 사람도 '응징 본능'



김 언 세 (정책사회부)

무력 사용은 보복을 부른다. 보복은 다시 피의 보복 등으로 반복된다. 이 공식은 세 령계거나 아마존에 서식하는 맹수들 간에도 작동한다.

10년 전쯤이다. 사자 두 녀석이 점박이하이에나 한 마리와 대적하는 장면이 한 SNS 영상에 담겼다. 이례적이다. 보통 하이에나 대역적이 암사자 한둘을 공격하는 장면을 봐 왔기 때문. 두 수사자의 상대인 영급 습에 하이에나 다수가 혼비백산해 흩어진 다. 그러나 출혈량에 실패한 한 마리. 처절하게 버텼지만 끝내 죽임 당하고 만다. 동영상 해설에 따르면 형제의 복수극이었다. 사건에 앞서 사자무리 암컷과 새끼들이 공

격박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로의 숨통을 끊고 영역을 넓히려는 사자와 하이에나 간 대립은 인간계와 닮아 있다. 돌연 별집을 쭉셔 놓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는 중동의 맹주 이란이다. 휴전이 라 하지만 사태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판국에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지는 대 목이 있다. 이란에 당한 서아시아 주변국들이 잘 참아 내고 있는 것. 아랍에미리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반격을 감행했다면 파국의 폭대기로 치달을 뻔했다. 물론 그럴 개연성도 싸 사라진 않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를 신뢰할 리 없다. 뒷통수를 이 미 세계 언어맞은 상황. 백악관은 전쟁발발 이후에도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여왔다. 하 메네이 제거로 임무는 끝났다면 미국, 이후 호르무즈 봉쇄에 전 세계가 유가 폭등 직격

탄을 맞고 다시 전쟁을 한 달이나 넘겨, 들고 나온 협상카드는 농축 우라늄. 그간 이란 및 레바논 전역에 미사일을 난사한 까닭이 온전히 핵개발 억제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그도 역시 공군력만으로 이란 제압하기란 불가능하단 걸 잘 알 터. 이스라엘 역시 인구가 자국의 열 배나 되는 이란을 포격·공습만으로 상대하기엔 역부족.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선 미군을 등에 업은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중동전쟁 당사국 중 지상군 투입작전을 가장 바라는 쪽일지도 모른다.

백악관은 자평을 지속할 자유가 있다. 단, 지상전 계획만큼은 접은 뒤에. 미·이스라엘 육군의 이란 영토 진입은 대강을 부르고 테러 등의 불씨를 키운다. 팬스레 두들겨 맞는 걸프국들이 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5일 (음 2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어려움을 손조로이 헤쳐 나가는 운세입니다. **60년생** 뒷사람이 베푸는 덕을 보게 됩니다. **72년생** 교통사고가 염려되니 유의하세요. **84년생** 원하는 회사나 대기업에 취직될 운이 있습니다.
- 49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길합니다. **61년생** 외출은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73년생**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습니다. **85년생** 욕심을 부리면 매사를 서두르게 되니 차분히 생각하세요.
- 50년생** 모든 액이 사라지는 운입니다. **62년생** 길중에 길한 일진입니다. **74년생** 막혔던 일들이 서서히 풀리며 번창일로에 서게 됩니다. **86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입니다.
- 51년생** 매사가 다소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52년생** 주위에 믿음을 심어가며 때를 기다리세요. **64년생** 경쟁망동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76년생**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세요. **88년생** 건강상에 흉신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본일이 생겨 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54년생** 주위의 시비나 구설을 조심하세요. **66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은 없습니다. **78년생** 가급적 술자리를 피하세요. **90년생** 쉬은 듯하나 중도에 장애가 많으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 55년생** 지체가 필요한 운입니다. **67년생** 곧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79년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1년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를 가지세요.
- 56년생** 분명히 소망은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68년생** 동북방향이 길합니다. **80년생** 주변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좋은 일로 돌아옵니다. **92년생** 어려움이 닦쳐오나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 57년생** 걱정없이 무탈하고 편안한 날입니다. **69년생** 뽐족하고 날카로운 것을 조심하세요. **81년생** 승진운이 있었습니다. **93년생** 만족감에 유유자적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 58년생** 우연히 소중한 물건을 얻게 됩니다. **70년생** 노력의 대가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82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은 하루입니다. **94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59년생** 주변사람들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방에서 원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생의 봄

상담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오니 힘들었던 일이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소식을 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운세가 트이고 인생의 긴 겨울이 조금씩 끝나고 있다는 신호로,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왔던 사람이 생각한다. 매출이 줄고 거래가 끊기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다시 연락이 왔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손님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희망이 보이니 긴 겨울 끝에 맞이하는 따스한 봄날 같은 소식이었다. 계절에도 봄이 왔다. 봄은 풀어지는 계절이다. 겨우내 얼어있던 것들이 하나둘 풀린다.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움츠렸던 어깨도 활짝 펴진다. 추위가 물러가면 꽃이 피어난다. 매화가 먼저 피고, 이어서 개나리와 벚꽃이 뒤따른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보이던 나무들이 갑자기 꽃으로 가득 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겨울을 인생의 고난에 비유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마음이 힘들 때면 겨울이 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온다. 거리에 가득한 꽃은 결국 봄이 온다는 것을 매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람을 괴롭히던 추위도 어느새 모두 사라졌다. 지금도 누군가는 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날지 알 수 없어 답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절이 그렇듯 그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에도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봄에 꽃이 피어나듯 사람들의 삶에도 꽃은 피어난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는 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합격의 꽃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 봄처럼 풀리는 때가 누구에게나 온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2	9	1			3	
5	3				7		6	
					5			8
	5	1						2
3								5
9						4	1	
1			2					
	7	6					8	3
6			8	4	1			

7	1	8	9	8	4	9	6	2
9	4	9	2	1	6	8	8	7
2	8	6	9	8	7	4	9	1
9	6	7	8	2	1	8	9	4
4	9	1	6	7	8	2	8	9
8	2	8	4	9	9	1	7	6
1	7	9	8	6	2	9	4	8
6	9	4	1	9	8	7	2	8
8	8	2	7	4	9	6	1	9

6	9	1	7	8	4	8	9	2
8	8	2	1	6	9	9	4	7
4	7	9	8	9	2	8	6	1
9	1	7	8	8	9	4	2	6
9	6	8	2	4	1	9	7	8
2	4	8	6	9	7	1	9	8
8	2	4	9	7	8	6	1	9
1	9	6	4	2	8	7	8	9
7	8	9	1	6	2	8	4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